

보 도 설 명 자 료

(17.7.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고리 공사 참여업체만 1700여곳 1만 3000명
일자리 잃을 위기”(7.17, 이데일리)

1. 기사내용

- 당장 신고리 5·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경우 직접적으로
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은 1만 2,800명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신고리 5·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근로자 1만 3천여명대
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7.14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, 한수원은 공론화를 위해 3개월
동안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임
- 한수원은 공사 인력을 현장·자재·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
등의 업무에 투입하여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며, 공사 참여
업체들과 세부적인 내용을 조속하게 협의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(044-203-5320)